

억눌리는 이스라엘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22)

출애굽기는 구약성경의 두번째 책으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야곱 후손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다.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종살이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 억압의 땅을 빠져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1-15 장). 이 사건 때문에 이 책은 라틴어 성경에서 '엑소두스' (빠져 나옴) 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라고 불리게 되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출애굽 때의 험난한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내산 계시와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인약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택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할 일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창대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46:26-27 에 축복하신대로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할 때 칠십인을 이루었다. 70 이던 백성의 숫자가 이제 큰 백성이 되었다. 70 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충만을 상징하는 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번성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본문 7 절은 창조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던 것을 상기시킨다 (창 1:28). 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온 땅을, 본문에서는 애굽을 가리킨다.

애굽의 억압, 하나님의 손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애굽을 위해 요셉이 했던 일들은 잊혀졌다. 애굽 임금의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려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걱정했던 일 (저희가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 발생하고 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역 (공공 건축사업에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제공할 의무) 에 끌려 나갔다. 이 일이 람세스 2 세가 동부 나일 삼각주에 새로 건설한 왕궁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애굽인들이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여기에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벽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잘게 썬 짚의 제공을 중단하였다.

억압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하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만 이 또한 성과가 없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산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명령을 거스렀다. 산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는 용기와 기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본문에서는 산파들이 아기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실 아닌 것을 말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보상을 바라서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애굽 임금이 이 마지막 조치로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개별적인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생각하기

1:20 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한다’ 고 말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이는 산파들의 변명이 단지 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음을 뜻한다. 즉 산파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을 통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킴으로써 유아살해 정책을 포기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필연성을 보여 줌으로써 그 시기 또한 임박했음을 시사해 준다. 동시에 애굽왕 바로로 상징되는 사단과 불의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Oppressed Israel

Then Pharaoh gave this order to all his people:

"Every boy that is born you must throw into the Nile, but let every girl live." (Exodus 1:22)

The book of Exodus is the second book of the Old Testament and records the fate of the descendants of Jacob, who became a great nation in Egypt - Israel. The first part of Exodus tells us how the Israelites came to be enslaved by the Pharaoh and how, with God's help, they escaped from oppression (Chapters 1-15). This event gave the book the name "exodus" in the Latin Bible and the name "Exodus" in the English Bible. The importance of the book of Exodus is not only the harsh experience of Exodus, but also God's revelation at Mount Sinai and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God chose the people himself and made them his

people by faithfully caring for them. The role of God's people is to respond personally to the grace of God that they have received without any cost to them.

The greatness of Israel

When Jacob left Israel and migrated to Egypt with his sons and people, there were seventy followers that God blessed them with in Genesis 46:26-27. The significance of the number of people, seventy, became a great people because seventy is a number that symbolizes fullness. God fulfills His promise of multiplication through Abraham. God is faithful to fulfill what He has promised. Verse 7 reminds us that in the earth's creation, He blessed it to be fruitful (Genesis 1:28). The word "land" refers to the whole earth in Genesis and to Egypt in the text.

Egyptian Oppression, God's Touch

The work Joseph had done for Egypt was quickly forgotten when the power of a new king arose. The Egyptian king, in his wisdom, oppressed the Israelites to decrease their numbers and leave his land - which eventually happened. The Israelites were taken into vassalage (forced to provide labor for public building projects). This wa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Ramses II's new royal palace in the Eastern Nile Delta. However, this had the opposite effect because the Egyptians were terrified that there was a powerful force at work there. The Egyptians made the Israelites' labor even more difficult. They even stopped providing the chopped straw that was essential for proper brick making.

God's Intervention during Oppression

The Pharaoh took new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Israelites, but was unsuccessful again. He ordered the midwives to kill any Israelite mother who gave birth to a son. But the midwives did not obey his orders because they were all Israelites. Their disobedience thwarted the Pharaoh's plans. The reason why they disobeyed the Pharaoh's command was because they were more fearful of disobeying God. The midwives' decisions show a combination of courage and strength. The text makes no issue of the midwives saying things that are not true to save the babies. While there were rewards for fearing God, it is unlikely that these women were seeking for a reward.

Thinking

1:20 says, "God has grace" in 1:20. God was gracious because of the midwives telling Pharaoh, "The Hebrew women are robust and dismiss before their time. This means that the midwives' excuse was not just a lie to get by, but was well-intentioned enough for God to give

them favor. The midwives wanted to protect the nation of Israel by convincing Pharaoh that it was impossible to kill the children born to Hebrew women through them, so that he would abandon his policy of infanticide, and their idea was good in the sight of God.

These texts demonstrate the inevitability of the exodus of the children of Israel, suggesting that it is imminent. They also teach us how hard Satan and the forces of unrighteousness, symbolized by Pharaoh, are working to harm us. But more importantly, the invisible hand of God surrounds us.